



지난 7월 7일 선재사찰음식문화연구원(원장 선재)은 서울 구로구 미래초등학교를 찾아 '사찰음식과 학교 급식의 만남'을 진행했다. 사진은 선재 스님이 배식을 하고 있는 모습.



7월 8일 서울 노원구 노일초등학교 체육관에는 1~4학년 학생 4백여 명이 모여 뮤지컬 '그거 알아? 음식은 생명'을 관람했다. 이 공연은 급식에 앞서 음식의 중요성을 알리는 취지로 마련됐다.

# 부처님 올바른 식습관 '학교로' 가다

## 선재사찰음식문화연구원, 서울시 10개 초등학교서 사찰음식 '포교'

아이들에게 사찰음식 문화를 교육함으로써 올바른 식습관을 개선하는 한편 생명 존중 사상까지 한 번에 포교하는 곳이 있다. '사찰음식과 학교 급식의 만남'이다. 사찰음식은 화학성분을 사용하지 않은 채식단으로 구성돼 '생명존중사상'이라는 불교적 가치가 내포돼 있다. '사찰음식과 학교급식의 만남'을 이끌고 있다. 어린이 뮤지컬 '그거 알아? 음식은 생명' 및 학부모 대상 '어린이를 위한 음식은 생명' 강연을 실시 진행하고 있다.

선재사찰음식문화연구원(원장 선재)은 서울시와 공동주최로 지난 6월 9일부터 서울시 소재 초등학교 대상 '사찰음식과 학교급식의 만남'을 이끌고 있다. 어린이 뮤지컬 '그거 알아? 음식은 생명' 및 학부모 대상 '어린이를 위한 음식은 생명' 강연을 실시 진행하고 있다.

### 사찰음식 통해 식문화 개선 나서

어린이 뮤지컬 · 학부모 강연 '맛춤' '편식 부모 탓... 음식이 인성 좌우'

는 것으로, 아이들이 좋아하는 음식이 아닌 '좋은' 음식을 먹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연에 이어 체육관에서는 1~4학년 400여 명 대상으로 뮤지컬을 선보였다. 선재 스님이 직접 극본을 쓴 '그거 알아? 음식은 생명'은 <서유기> 주인공 삼장법사 · 손오공 · 사오정 · 저팔계가 주인공으로 등장해 편식, 잔반남기기 등 잘못된 식습관을 바로 잡아가는 과정을 보여준다. 아이들의 흥미를 이끄는 동시에 교훈적 내용

을 담고 있어 학부모와 교사들에게 큰 관심을 받고 있다. 뮤지컬 관람 후 3학년 이에서 학생은 "농부 아저씨들의 고생을 생각하며 밥 한 톨 남기지 말아야 겠다고 생각했다", 1학년 엄기운 학생은 "채소를 싫어했는데 이제 시금치랑 김치도 잘 먹을 것"이라고 후기를 남겼다.

특히 뮤지컬 관람 후에는 전교생 점심 급식으로 사찰음식을 제공한다. 선재사찰음식문화연구소 연구원이 각 학교 급식실에 파견돼 영양사들에게 레시피를 직접 전수한다. 채소 섭취가 적은 요즘 어린이들을 위해 두부채소볶음밥, 참외무침, 된장표고 버섯튀김, 버섯아재집채, 양배추흑미자무침 등 어린이 맞춤 식단으로 구성했다. 앞서 7월 7일 점심급식으로 사찰음식을 제공한 구로구 미래초등학교 김선화 영양사는 "평소와 달리 고기를 일절 사용하지 않았지만 아이들이 교육을 받은 터라 남기지 않고 잘 먹었다"며 "아이들이 무엇을 먹느냐는 건강과 함께 인성도 좌우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자연에 가까운 사찰음식을 자주 접해 바른 인성을 가진 어린이로 성장하길 바란다"고 웃어보였다.

이번 사업을 공동 주최한 서울시 친환경급식담당관 김선희 주무관은 "음식이 생명이라는 것은 불변의 진리다. 사찰음식을 하나의 전통음식문화로 보고 아이들에게

생명존중사상을 전하고자 했다. 학교마다 반응이 뜨거워 내년에는 사업을 확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선재사찰음식문화연구원은 지난해 전국비구니회관을 비롯해 강남구 법통사, 수원 봉녕사, 화성 신흥사 등에서 같은 프로그램을 선보인 바 있다. 하지만 사찰이 아닌 일반 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선재사찰음식문화연구원 전미영 사무국장은 "부처님의 음식철학을 일반 학교서 포교하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라며 "사찰음식은 불교의 생명존중 교훈과 함께 식생활 교육에 매우 효과적이다. 교계가 다같이 관심을 가져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선재 스님은 교육 프로그램을 체계적으로 정착할 희망도 내비쳤다. 선재 스님은 "여력이 된다면 '사찰음식 체험학교'를 개설할 계획"이라며 "불교의 생명관을 더욱 심도 있게 가르쳐 아이들에게 올바른 음식문화를 포교할 수 있길 바란다"고 덧붙혔다.

6월 9일부터 오는 7월 24일까지 서울시 10개 학교서 진행되는 '사찰음식과 학교급식의 만남'은 △친환경식재료 70%이상 사용 △가급적 전통장류 사용 △학교 자체 식생활교육 계획을 수립 · 추진하는 서울시 소재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선정했다.

박아름 기자 pak502482@hyunbu.com

## 참선의 경지를 한 단계 UP... 한국문화연수원 '여름참선심화과정'

### 8월 13~16일 금봉선원장 혜국 스님 지도

한국문화연수원이 2015년 여름 참선심화과정인 '화두, 영원한 행복의 길'을 개설한다. 조계종 한국문화연수원(연수원장 구과 스님)은 8월 13~16일 3박 4일 동안 일반

인들을 대상으로 한 2015년 여름 참선심화과정 '화두, 영원한 행복의 길'을 운영한다. 시민선원 등에서 참선을 경험하거나 입문과정을 수료한 이들을 대상으로 진행하

는 참선심화과정은 첫날 충주 석종사 금봉선원장 혜국 스님의 발심법문을 시작으로 화두정진이 이어질 예정이다.

혜국 스님은 발심을 독려하고 참선과정에서 궁금했던 부분에 대한 질문에 직접 답할 예정이다. 한국문화연수원장 구과 스님의 소참법문과 참선위촉교수인 박희승 교

수의 특강, 백범명상길에서 진행되는 행선과 중간면담의 시간 등도 진행된다.

한편, 한국문화연수원은 2010년부터 총 15기수의 500여 참선입문수료자를 배출했다. 참선입문과정은 종교 등에 상관없이 누구나 참여가능하다.

한국문화연수원 측은 "참선프로그램은 불교의 수행프로그램을 넘어서 많은 이들에게 행복의 본향을 찾는 디딤돌 역할을 해오고 있다"며 관심을 당부했다.

노덕현 기자 noduc@hyunbu.com

## 포교원인증 인성프로그램 공모

### 홍보 · 운영 관한 자문 지원 혜택

인성교육진흥법이 시행됨에 따라 인성교육 프로그램이 붓물처럼 터지고 있는 가운데, 조계종 포교원이 인성프로그램 중단 인증제를 시행한다.

조계종 포교원(원장 지원)은 7월 13일~8월 12일 포교원인증 청소년 인성프로그램을 공모한다. 사찰 · 단체 · 기관 등에서 운영 혹은 운영 예정 중인 인성프로그램에 대한 중단 인증제 시행이다.

포교원 인증을 받은 프로그램은 홍보 및 운영에 관한 자문과 지원을 받게 된다. 리플릿 등 홍보물에 '포교원인증 프로그램'이 명시될 뿐 아니라 포교원 발간 <청소년인성인증프로그램 가이드북> 게재, 참가신청서 등 접수 서류는 조계종 홈페이지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으며, 작성 후 등기 우편 또는 메일(koseulki@buddhism.or.kr) 접수 가능하다. 문의 (02)2011-1911 박아름 기자

포교원 주관 · 주최 행사에 해당 프로그램 정보 제공, 지도자 양성교육 지원, 포교원과 공동 사업 전개 등 특권이 주어진다.

포교원은 "인성교육진흥법 시행에 따라 개별 지도자를 중심으로 분산 운영되고 있는 인성프로그램의 질적 향상 및 운영 표준화를 마련키 위함"이라며 "청소년 인성프로그램 자문위원회서 기존 프로그램에 대한 중단 인증 심의를 시행하고 포교원 회의의 부의를 거쳐 인증 프로그램을 선정할 예정"을 밝혔다.

참가신청서 등 접수 서류는 조계종 홈페이지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으며, 작성 후 등기 우편 또는 메일(koseulki@buddhism.or.kr) 접수 가능하다. 문의 (02)2011-1911 박아름 기자

## 파라미타 사경공모전 당선작 발표

### 대상, 영석고2 박세원 · 서일여고3 이혜원 양

파라미타청소년연합회 주최 제18회 전국청소년 사경공모전 당선 결과가 발표됐다.

사단법인 파라미타청소년연합회(회장 정영, 이하 파라미타)는 지난 4월 27일~6월 26일 개최한 전국청소년 사경공모전 수상자를 발표했다. 대상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상 박세원(영석고 · 2학년)양, 봉족위원장상 이혜원(서일여고 · 3학년)양이 선정됐다.

부처님오신날 봉족위원회, 문화체육관광부, 조계종 포교원, 동국대학교, 불교신문, 한국청소년협의회 후원으로 파라미타가 주최하는 전국 청소년 사경공모전은 올해 18회를 맞이했다. 이번 공모전에는 1만 5천여 명의 학생이 참가했으며, 34개 단체 작품 중 4백여 점이 자체심사를 통해 추천됐다. 추천작들은 자체심사와 전문가심사를 거쳐 대상상 2명 △최우수상

4명 △우수상 4명 △특선 10명 △장려상 10명 △입선 30명 등 총 60여 작품이 당선됐다.

심사위원으로는 전통사경 기능전승자 김경호 한국사경연구회 명예회장과 파라미타 상임이사 법경 스님이 나섰다. 김경호 심사위원장은 "오타나 탈자, 그림이 주가 돼 주객이 전도된 작품은 엄격히 제외했으며 서체의 창작과 개성, 회화와 경문 내용의 일치율 수상기준으로 삼았다"며 "해가 거듭되며 더욱 다양한 우수작품들이 출품되는 것을 보며 사경의 최고 전성기를 구가했던 고려시대 선조들의 빛나는 위업과 전통이 오늘날 재창조될 것을 기대하고 있다"고 심사소감을 전했다. 한편 제18회 전국청소년 사경공모전 수상자들은 파라미타 홈페이지(www.paramita.or.kr)에서 확인 가능하다.

박아름 기자

## 원어민과 사찰서 뛰어 노는 어린이캠프

### 비로자나국제선원, 8월 1일~4일 화엄사서

원어민과 함께 하는 어린이 심성개발 여름캠프가 열린다.

서울 서대문구에 위치한 비로자나국제선원(주지 자우, 이하 국제선원)은 전남 구례 화엄사서 8월 1일~4일 자우 스님과 함께 하는 제9회 신나는 영어담마캠프를 개최한다. 이번 캠프의 주제는 'We are One! 우리는 하나'이다. 어린이들에게 나와 남이 하나로 연결된 유기적 공동체를 인지시켜 자주 · 협동적인 사람으로 성장시키기 위한 취지다.

자우 스님은 "요즘 어린이들은 학업 또는 스마트폰, 게임기에 빠져 친구들과 함께 보내는 시간이 적기 때문에 사회성과 자신감이 부족하다"며 "아름다운 사찰에서 원어민들과 함께 하는 심성 개발 프로그램을 통해 심리적 안정과 자아의 소중함, 나아가 영어에 대한 친숙함을 느낄 수 있을 바란다"고 전했다. 영어캠프답게 영어 이색 프로그램이 다채롭다. △노래 'Three poisons' 과 함께하는 마음청소 콘테스트 △영어 일기 쓰기 △영어로 부모님을 소개하는 '엄마, 아빠가 짱!' △영어 미션 보물찾기 등이 마련됐다.

박아름 기자

**국외유출 범어사 칠성도 환수를 축하합니다.**



환수된 범어사 칠성도(1861년 제작)

부산광역시 연제구 교대로 16번길 27(거제동) 전화\_ 051)501-7554 팩스\_ 051)501-9333

공 고

(사)국제불교승가회 정관 규정에 의거하여 사업, 활동, 이·취임 또는 임명에 관한 모든 제반사항은 본 법인의 이사장 및 임원의 동의 또는 인정, 승인 없이는 모든 사항은 무효이며 적발시 민,형사상의 모든 법적 책임을 물을 것입니다.

- 아 래 -

- 1 단체 명칭 사용 (유사 명칭 포함)
- 2 수익사업과 관련된 모든 사업
- 3 창시자 동암스님과 관련된 모든 사항
- 4 법계수여, 임명, 이·취임(중단지부 등 또는 회원가입)의 관련된 모든 업무

2015년 7월 6일

(사)국제불교승가회 이사장 송애자  
부이사장 윤병권  
이사 이황외 7인